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 포일시	2021. 7. 22.(목) 09:30
담당과장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동익 (044-215-4710)	담당자	김민주 사무관 (kimminju@korea.kr)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등급인 'AA-', 안정적'으로 유지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7.22(목),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

* 지난 6.30~7.8일간 실시한 연례협의 결과 반영

○ 한국의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을 균형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

◇ 피치는 코로나19 이후 다수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등급을 유지

* '20.3월 이후 영국·캐나다·프랑스·일본·미국 등 18개국의 등급 또는 전망 하향조정 → 현재까지 라트비아를 제외하고는 팬데믹 이전 수준 未회복

피치의 주요국 국가신용등급('21.7월 현재)

신용등급	국 가 명
AAA	스위스,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호주(-), <u>싱가포르</u>
AA+	캐나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AA	프랑스(-), 뉴질랜드(+), <u>마카오</u> , 아부다비, 쿠웨이트
AA-	<u>한국</u> , 영국, 벨기에(-), 체코, <u>홍콩</u> , <u>대만</u> , 아랍에미리트 등
A+	<u>중국</u> , 아일랜드, 몰타, 이스라엘
A	<u>일본(-)</u> , 아이슬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등
A-	스페인, 라트비아, 폴란드, 칠레

* 국가명 뒤 (+)는 "긍정적" 전망, (-)는 "부정적" 전망, 나머지는 "안정적"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 이 부분은 보도 편의를 위해 피치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링크 및 첨부한 피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21-07-2021>

□ **[총평]**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 반영한 결과

-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 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전망

□ **[성장]** 수출·투자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되며, GDP가 '21년 4.5%, '22년 3.0% 성장할 전망*

* 지난 6.15일 피치가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으나,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제회복, 재정지원 등으로 코로나의 경제 상흔(scarring)은 제한적이겠으나,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
- 한국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추진 중이며, 그 효과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평가가 가능할 전망

□ **[재정]** 2차 추경 편성에 불구하고 재정전망은 당초 대비 개선될 전망이나,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

- 2차 추경이 재원을 추가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

* 피치의 국가채무/GDP 전망(기준→신규, %): ('21) 47.8→47.1, ('24) 약 58→약 54

-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은 국가채무 증가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험의 향후 전개는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
- **[통화]**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금년 1차례, 내년 2차례(각 25bp씩) 인상 예상
- **[리스크]** 저금리, 주택공급 부족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가계·기업 건전성, 정책대응 등으로 그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
- 對北 관계는 교착 상태지만, 현재 긴장 수위는 안정세
- 대규모 순대외채권,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제공

2. 평가 및 대응

- 피치의 이번 신용등급 평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신뢰와 긍정적 시각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
- 이번 피치의 등급 발표로, S&P(4.28), 무디스(5.12)에 이어 3대 신평사 모두 올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변함없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

- 코로나19 이후 피치가 18개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조정하였고, 하향된 등급·전망이 지금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시, 이번 결과는 의미 있는 성과

* '20.3월 이후 영국·캐나다·프랑스·일본·미국 등 18개국의 등급 또는 전망 하향 → 현재까지 라트비아를 제외하고 팬데믹 이전 수준 未회복(☞ 참고3)

□ 한편, 재정건전성,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기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신평사의 높은 관심도 함께 확인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기 재정여력 확보 및 재정지출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등에 주목

□ 정부는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의 정책대응 및 경제회복 동향 등을 적극 알리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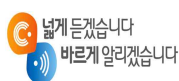
- 신평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 “한국판 뉴딜 2.0” 등 혁신전략이 우리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 [참고 1]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참고 2]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21.7월 현재)

[참고 3] 코로나19 이후 피치의 선진국 신용등급·전망 조정

[참고 4] 피치 보도자료 원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Moody's			S&P			Fitch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15.12.18	Aa2	Stable	16.08.08	AA	Stable	12.09.06	AA-	Stable
15.04.10	Aa3	Positive	15.09.15	AA-	Stable	11.11.07	A+	Positive
12.08.27	Aa3	Stable	14.09.19	A+	Positive	09.09.02	A+	Stable
12.04.02	A1	Positive	12.09.13	A+	Stable	08.11.10	A+	Negative
10.04.14	A1	Stable	05.07.27	A	Stable	05.10.24	A+	Stable
07.07.25	A2	Stable	02.07.24	A-	Stable	05.09.19	A	positive
07.07.03	A3	RUR(+)	01.11.13	BBB+	Stable	02.06.27	A	stable
06.04.25	A3	Positive	99.11.11	BBB	Positive	02.05.13	BBB+	Wat Pos
04.06.11	A3	Stable	99.01.25	BBB-	Positive	00.09.21	BBB+	Stable
03.02.11	A3	Negative	99.01.04	BB+	Positive	00.03.29	BBB+	-
02.11.15	A3	Positive	98.02.18	BB+	Stable	99.06.24	BBB	-
02.03.28	A3	Stable	98.01.16	B+	Wat Dev	99.04.26	BBB-	Wat Pos
01.11.29	Baa2	Positive	97.12.22	B+	Wat Neg	99.01.19	BBB-	-
99.12.16	Baa2	Stable	97.12.11	BBB-	Wat Neg	98.12.22	BB+	Wat Pos
99.08.23	Baa3	RUR(+)	97.11.25	A-	Wat Neg	98.06.19	BB+	-
99.02.12	Baa3	Positive	97.10.24	A+	Negative	98.02.02	BB+	Wat Pos
98.12.18	Ba1	RUR(+)	97.08.06	AA-	Negative	98.01.21	B-	Wat Pos
97.12.21	Ba1	RUR(-)	95.05.03	AA-	Stable	97.12.23	B-	Wat Neg
97.12.10	Baa2	RUR(-)	94.11.09	A+	Positive	97.12.11	BBB-	Wat Neg
97.11.27	A3	Stable	94.06.09	A+	Negative	97.11.26	A	-
97.10.27	A1	Negative	89.06.26	A+	Positive	97.11.18	A+	-
97.03.07	A1	Stable	88.10.01	A+	-	96.06.27	AA-	-
90.04.04	A1	-						
86.11.18	A2	-						

* (Moody's) RUR: Rating Under Review for Upgrade(+) or Downgrade(-)
 (S&P · Fitch) Watch Positive > Positive > Stable > Negative > Watch Negative

참고 2

주요국¹⁾ 국가 신용등급 비교 ('21.7월 현재)

구분	등급 ¹⁾	Moody's	S&P	Fitch
투자 등급	AAA (Aaa)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12개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11개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호주(-), 싱가포르 10개국
	AA+ (Aa1)	핀란드, 오스트리아 2개국	미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홍콩, 뉴질랜드 5개국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3개국
	AA (Aa2)	한국 ,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한국 , 프랑스, 아부다비, 대만(+), 벨기에,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아부다비, 마카오
	AA- (Aa3)	영국, 벨기에, 체코, 홍콩, 마카오, 대만(+)	체코, 아일랜드	한국 , 영국, 벨기에(-), 체코, 홍콩, 대만, 아랍에미리트
	A+ (A1)	일본, 중국,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	중국, 아일랜드
	A (A2)	아일랜드, 폴란드	칠레, 스페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A- (A3)	페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폴란드, 칠레
	BBB+ (Baa1)	스페인, 태국, 멕시코(-)	페루, 필리핀, 태국	페루(-), 말레이시아, 태국
	BBB (Baa2)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포르투갈
	BBB- (Baa3)	이탈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인도(-)	러시아, 인도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투기 등급	BB+ (Ba1)	모로코(-), 파라과이	모로코,	모로코, 파라과이
	BB (Ba2)	브라질, 남아공(-)	그리스(+), 베트남(+), 파라과이	그리스, 베트남(+)
	BB- (Ba3)	그리스, 베트남(+)	브라질, 남아공, 피지(-)	터키, 브라질(-), 남아공(-)
	B+ (B1)	피지(-)	터키	이집트, 케냐(-)
	B (B2)	터키(-), 캄보디아, 이집트	몽골, 이집트, 우크라이나	몽골, 우크라이나
	B- (B3)	몽골,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파키스탄

1)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3) 국가명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 긍정적 등급 전망

참고 3

코로나19 이후 피치의 선진국 신용등급·전망 조정

□ 코로나19 이후('20.3월~) 6개국 등급 하향, 12개국 전망 하향

→ 현재 라트비아를 제외하고는 팬데믹 이전 수준 未회복

* 영국은 '등급' 하향 후 최근 '전망'만 상향조정(팬데믹 이전 수준 하회)

구분	국가	날짜	등급·전망 조정		비고
			전	후	
등급 하향	영국	'20.3.27.	AA(N)	AA-(N)	'21.6.18. 전망 상향 → AA-(S)
	산마리노	'20.4.10.	BBB-(N)	BB+(N)	
	홍콩	'20.4.20.	AA(N)	AA-(S)	
	이탈리아	'20.4.28.	BBB(N)	BBB-(S)	
	슬로바키아	'20.5.8.	A+(S)	A(S)	'20.11.6. 전망 하향 → A(N)
	캐나다	'20.6.24.	AAA(S)	AA+(S)	
전망 하향	벨기에	'20.4.3.	AA-(S)	AA-(N)	
	키프로스	'20.4.3.	BBB-(P)	BBB-(S)	
	라트비아	'20.4.10.	A-(S)	A-(N)	'20.10.9. 전망 상향 → A-(S)
	몰타	'20.4.17.	A+(P)	A+(S)	
	포르투갈	'20.4.17.	BBB(P)	BBB(S)	
	그리스	'20.4.23.	BB(P)	BB(S)	
	오스트리아	'20.4.23.	AA+(P)	AA+(S)	
	프랑스	'20.5.15.	AA(S)	AA(N)	
	호주	'20.5.21.	AAA(S)	AAA(N)	
	아이슬란드	'20.5.22.	A(S)	A(N)	
	일본	'20.7.28.	A(S)	A(N)	
	미국	'20.7.31.	AAA(S)	AAA(N)	

※ 선진국/신흥국 구분: IMF 세계경제전망(WEO) 분류 기준



RATING ACTION COMMENTARY

Fitch Affirms Korea at 'AA-'; Outlook Stable

Wed 21 Jul, 2021 - 오후 8:00 ET

Fitch Ratings - Hong Kong - 21 Jul 2021: Fitch Ratings has affirmed Korea's Long-Term Foreign-Currency Issuer Default Rating (IDR) at 'AA-' with a Stable Outlook.

A full list of rating actions is below.

KEY RATING DRIVERS

Korea's rating balances robust external finances, resili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modest fiscal headroom against geopolitical risks related to North Korea and medium-term structural challenges from an ageing population. The strong economic recovery, underpinned by the government's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a dynamic export sector, should continue to support Korea's credit metrics in the near term.

We forecast Korea's real GDP to grow by 4.5% in 2021 ('AA' median 4.6%), following a modest 0.9% contraction in 2020 ('AA' median -6.1%). Korea's near-term growth prospects continue to be underpinned by robust export performance, which supported a return of GDP to pre-coronavirus levels by 1Q21, and is fostering higher domestic investment.

A recent increase in coronavirus cases poses downside risks to our expectations of a domestic consumption recovery in 2H21, as social distancing restrictions have now been tightened to their highest level during the pandemic in Seoul. Still, the vaccination rollout has accelerated since May, and the government appears likely to meet its target of reaching 70% of the population by November. This, along with additional fiscal support under the recently proposed supplementary budget, should facilitate a sustained recovery in domestic consumption through 2022. We forecast 3.0% growth in 2022.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21-07-2021>

Economic scarring from the pandemic should be relatively limited in Korea, in our view, due to the resilient economic performance and fiscal support to households. However, the country faces medium-term growth pressures from its rapidly ageing population. We have revised down our estimate of potential growth to 2.3% from 2.5% previously to reflect effects of adverse demographics. The incumbent government has sought to offset these medium-term challenges through higher spending to boost productivity growth, particularly through its recently announced "Korean New Deal", but it is too early to assess how beneficial this will be.

We expect the general government fiscal deficit to widen to 4.4% of GDP in 2021 from 3.7% in 2020, still below the 5.3% 2021 'AA' median. This forecast incorporates the KRW33 trillion (1.6% of GDP) second supplementary budget, which is proceeding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Higher spending under the supplementary budget is to be offset by stronger than expected revenue relative to previous budget assumptions, and contains no new debt financing. Some of the higher revenue is being used to reduce debt by about 1pp of GDP relative to previous government forecasts. As a result, we project government debt to rise by less than our previous forecasts, to 47.1% of GDP by end-in 2021 under our latest baseline ('AA' median 43.6%), from 43.8% at end-2020.

The government plans to begin reducing the fiscal deficit in 2022. We forecast the deficit to narrow to 2.6% of GDP, in line with the official medium-term outlook proposed as part of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Through 2024, the government plans to maintain deficits around the 2022 level. This marks a shift from earlier plans for higher deficits of around 4% between 2021-2024 in the government's original 2021 budget. As a result, debt/GDP would reach about 54% by 2024 under our baseline, below our 58% forecast from our previous review.

Korea's record of fiscal prudence mitigates some pressures associated with the recent rise in debt resulting from the pandemic and the incumbent government's more active use of fiscal spending. A proposed fiscal rule establishing a 60% of GDP debt ceiling and 3% of GDP fiscal deficit limit,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debate and could further anchor fiscal management. The higher debt burden nevertheless poses some risks to Korea's public finances, given spending pressures from an ageing population. Evolution of these risks will depend on how productivity and potential growth respond to the government's higher spending.

The Bank of Korea (BOK) has signalled its intention to begin tightening monetary policy conditions due to the strong cyclical recovery and its concerns around rising financial stability risks. The BOK cut its policy rate by 75bp to a historical low of 0.5% as of May 2020, amid the pandemic. We now expect a 25bp policy rate hike in 2H21 from 0.5%, followed by two additional 25bp hikes in 2022. We forecast headline inflation to average 2.2% in 2021, before moderating to 1.6% in 2022.

Low interest rates, along with tight supply conditions, are contributing to a rise in house prices and are fuelling a further rise in household debt. Housing price growth has accelerated considerably since 2020, rising by about 8.2% yoy nationally through June. Household debt, which was already at high levels, has subsequently risen to 104.7% of GDP in 1Q21 from 95.0% in 4Q19. The BOK and

government have introduced a range of measures to contain housing prices and manage risks, such as instituting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s on household loans and efforts to boost housing supply.

Fitch believes risks from the build-up in household debt are well contained because households' capacity to service debts is adequate and bank balance sheets are resilient, but vulnerabilities for both are increasing given the persistent rise in household debt. Capital positions in the banking sector have broadly improved and remain sufficient. Asset quality pressures from the pandemic are likely to be modest, even as regulatory relief measures are unwound, due to the cyclical recovery in the economy.

Diplomatic engagements with North Korea remain stalled, although tensions appear relatively stable for the time being. North Korea has largely broken off communications with both South Korea and the US, but it has limited its military provocations. Efforts are underway by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South Korea to restart negotiations over denuclearisation.

Solid external finances, underpinned by a large net external creditor position, sustained current account surpluses since 1998 and high foreign-exchange reserves, have remained intact through the pandemic and provide a buffer against global financial market volatility. We forecast the current account surplus to remain broadly stable in 2021 at 4.7% of GDP, as export performance remains robust, before moderating slightly to 4.1% in 2023. Foreign-exchange reserves rose to 9.2 months of current external payments by end-2020, but we expect a slight moderation to about 8.5 months over the next two years.

ESG - Governance: Korea has an ESG Relevance Score (RS) of '5[+]' for both Political Stability and Rights and for the Rule of Law,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Quality and Control of Corruption. These scores reflect the high weight that the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WBGI) have in our proprietary Sovereign Rating Model. Korea has a high WBGI ranking at the 78th percentile, reflecting its record of peaceful political transitions, well established rights for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strong institutional capacity, effective rule of law and a low level of corruption.

RATING SENSITIVITIES

FACTORS THAT COUL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LEAD TO NEGATIVE RATING ACTION/DOWNGRADE:

- Public Finances: A material rise in government debt/GDP, for example, as a result of sustained increases in fiscal deficits or materialisation of contingent liabilities.
- Structural: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ufficient to worsen Korea's economic metrics or security situation severely.

FACTORS THAT COUL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LEAD TO POSITIVE RATING ACTION/UPGRADE:

- Structural: A structural easing of geopolitical risk to levels more in line with rating peers.
- Structural: An improvement in governance standards, for example, through further reforms to reduce tie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 External: Continued current account surpluses that contribute to a sustained improvement in the net external creditor position and greater resilience to external financial shocks.